

전 남

목포시 사유지 관리 구멍

수십년 점유 방치 지상권 소송 휘말려 혈세 낭비

시민 체육시설 부지 식당 임대해주기도

목포시 공유재산인 사유지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정자립도 26.4%에 불과한 목포시로서는 '예산 타령'만 외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소송에 휘말려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연산동 1227, 1228, 1230번지 등 8필지 5만1000㎡가 대표적 사례다. 이곳은 사유지가 분명한데도 개 사육업자들이 수십 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해 10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다.

이곳은 그동안 무관심속에 방치돼 오다가 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과정에 문제가 불거졌다. 시가 진입로 개설과 주변 정비에 위해 이 땅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으나 업자들이 지상권을 주장하며 막무가내로 버텨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수십 년간 점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도 지탄받을 일인데 법률비용으로 시 예산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 처지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

이곳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칫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개 1마리를 처리하는데 마취 비용 12만원과 보관비 등 2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컨테이너 박스 등 주변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감안하면 2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석현동의 S병원도 전형적인 케이스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이 병원은 건축허가 신청서를 낼 당시 일부 국·시유지가 포함되어만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했다. 이에 목포시는 이 진입도로를 개설한 후 '기부채납' 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준공검사)이 나고 2년여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잘 해오다가 지난 2010년 경영난으로 폐업했다. 부도가 나자 병원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목포 옥암동 1039-5번지(대지면적 1338㎡) 사유지 역시 당초 목적대로라면 시민들을 위한 체육관련 시설이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시는 지역의 한 유주에게 지난 2009년 6월 3년 시한으로 이 땅을 임대해 줘 현재 식당이 성업중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놓고 있는 땅을 활용하고 관련 사용료를 받아 시 수입도 늘리는 일거양득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밖에도 죽산지구 택지개발로 매각된 토지 350㎡는 20여년 동안 관련 과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 회계과로 이관되기도 했다.

고경석 시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 = 고규석 기자 yousou@



'바다의 냉면' 꼬시래기 수확

장흥군 득량면에서 '바다의 냉면', '바다의 국수'로 불리는 해조류인 '꼬시래기' 생산이 한창이다.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진 '꼬시래기'는 지역산식품이다.

전남도 은퇴도시 투자유치 잔결음

전국 건설업체 등 40곳 임직원 유치설명회

전남도가 삼성, 현대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한국건설경영협회 회원사에 이어 도내·외 주요 건설사를 대상으로 잇따라 은퇴도시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전남도는 건설방재국장을 단장으로 한 3개팀 6명의 은퇴도시 투자유치팀을 구성, 지난 17일까지 1주일간 도내·외 주요 건설사와 전국 주택·관광단지 개발 실적이 있는 업체 40개사 12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은퇴도시 투자유치는 지난달 26일 삼성, 현대, GS, 포스코 등 한국

건설경영협회 회원사 투자 유치설명회 개최에 이어 두 번째다.

도는 건설경기 침체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억제 등이 이슈화되면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투자결정권을 권 업체 대표와 간부, 실무자 등에게 전남이 은퇴도시로 최적지인 점과 다양한 행정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점을 직접 설명,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유치 활동은 은퇴도시 후보지 44개소에 대한 지리적 특성과 땅값, 접근성, 경사도 등 자체 분석한 자료

를 활용해 자유토론 위주로 펼쳐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은퇴도시 조성사업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일부 업체는 실무팀을 구성해 은퇴도시 후보지를 방문키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 일정을 갖는 등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전승현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업체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하반기에도 은퇴도시 후보지에 대한 현지투어와 중·소 건설업체 및 주택·관광·레저시설 실적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계획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도 농업기술원

특허 등 35건

식품가공 기술 이전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지역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한 식품가공 기술 실용화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연구개발한 식품가공 기술 및 제품의 성과에 대한 홍보와 기술 이전할 산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홈페이지(www.jares.go.kr) 농업연구정보에 '식품기술 판매장터'를 개설했다.

이곳에는 유산 기술이전 대상인 '카복릭산 배당체의 제조방법' 등 특허 9건과 무상 기술이전 대상인 '찰쌀보리를 첨가한 설기떡 제조방법' 등 기술지원 11건, '양파즙 제조시 기능성 및 기호성 향상을 위한 부재료 적정첨가 비율' 등 영농활용 15건 등 총 35건이 공고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초 도내 가공업체 및 농민들의 기술이전 희망신청을 받아 35건의 연구기술에 대해 설명회를 열고 기술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식품경영연구소 감정화 식품가공팀장은 "도내 가공업체와 기술협약(MOU)을 체결해 지속적인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도 농식품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강진군-한국도자재단

도자산업 활성화 협약

우리나라 도자산업 발전을 위해 강진군과 한국도자재단(이사장 강우현)이 손을 잡았다.

강진군과 한국도자재단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도자기산업 관련 전시·행사 및 홍보활동 ▲도자기산업 관련 학술·인적자원 교류 ▲도자기산업 관련 정보·자료의 교환 및 제공 ▲강진청자추적제와 경기도자엔날레 행사시 청자·도자기 상호 교류 전시 판매 등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이행할 것을 합의했다.

/중부취재본부 = 남철희기자 chouli@

예산 아끼고 생활정치 앞장

목포시의회 '클린의정 연구회' 의욕적 활동

목포시의회 의원 5명으로 구성된 '클린의정 발전연구회'가 의욕적인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정치적 논리에 휘둘러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사안들을 논제로 삼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개선시키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시의회내 금지않은 시선까지 극복해 가면 서로 주민들의 복지와 희망을 향한 노력을 계속해 시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결성된 이후 목포시 의료원과 관련 재활병동 과다설계를 지적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킨데 이어 약품구매 방식도 그동안 상품명 위주로 해오던 관행을 과감하게 타파시켜 성분명으로 입찰하도록 개선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또 관용차량 유류 공급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는데도 한 몫을 했다. 화장장과 관련 의혹을 제기, 목포시의 직접 해명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특히 자녀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지대한 열정을 보였다. 농가와 도매상을 직접 찾아 나서는 현지 활동을 펼쳐 유통구조와 공급체계 문제점 등을 현장방향을 마련하는 데도 일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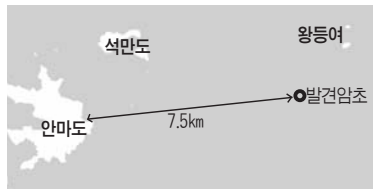
이들은 망중환을 틈타 지난 16일에도 회원 전원이 죽교동에서 위치한 생활공동체 예찬을 방문해 '밥과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홍민 회장은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 고규석 기자 yousou@

영광 안마도 부근 해역

암초 발견...향해 주의보



국립해양조사원 서해 해양조사사무소는 영광군 안마도 부근 해역에서 대형 암초를 발견했다며 항해 주의를 당부했다.

서해 연안의 수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해 해양조사사무소는 정밀 다중 수심측정기를 이용해 지난달 25일부터 4개월간 실시하는 수로측량 도중 안마도에서 7.5km 떨어진 남·동부 해역에서 이 암초를 찾아냈다.

안마도와 왕등어 사이 항로 부근에 있는 이 암초는 가로 60m, 세로 120m 규모로 720㎡의 암반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변 수심이 10~12m인 낮은 해역에서 2.5m의 암초가 안전 항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즉시 항행 경보조치를 취했다.

/서부취재본부 = 조익성기자 ischo@

안전한 현장관리, 철저한 청렴실천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공사현장 관계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지사장 김명운)는 지난 17일 각 사업지구별 공사감독, 시공현장 대리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4분기 공사현장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공사현장 관리노하우를 교환하고, 공사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부패없는 공사이행 업무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고령화된 농촌현실을 감안해 농업인 편의를 고려한 수해자 중심의 시공과 공정진행에 따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김명운 지사장은 "청렴실천과 안전한 현장관리가 따로 있지 않다"며 청렴을 바탕으로 공사감독과 현장관리인 간의 끊임없는 소



통으로 원활한 현장관리와 시공을 당부했다.

/송기동기자 song@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연소분 손님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TEL)011-602-2532 (광주은행 신촌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옆 유저빌딩 501

남구 대촌부근 주거지역

●남구 압촌동 한일베리체 주변 대로변 인근 토지 1990㎡(602평). 일반주거지역. 아스팔트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95만원. (슬래브 30평 포함)

소태동 잡종지매매

●동구 소태동 대이파트 주변. 잡종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북개면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증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지 매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 (3.3㎡당.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도곡נס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무인 협평 영광 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 개간 가능한 임야도 있음. 10,000㎡ - 70,000㎡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 2동.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억원 월세1천3백만원 매매가 20억원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운전저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4층건물 매매가 8억원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대지.전.담.임야

☆.광송간 대로변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마북동 담3,000㎡ 매매가 7억원

☆.벽진동 담5,600㎡ 매매가 11억원

☆.금호동 담1,600㎡ 매매가 4억2천만원

☆.오치동 대지506㎡ 매매가 4억6천만원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접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광산구 옥동(평동)주거지역 담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광산구 우산동 담279㎡ 매매가 4,200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 매매가 : 4억5천만원

♣.주유소매매

☆.광산구 오운동 시외에서 시내방향 2복식3대 매매가 9억원(면세유 다량 판매가능)

062-374-5945
010-3162-4989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도곡동면 무인모텔 객실70 감정48억 대출30억 매도38억

●쌍촌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0억7천

●금남로 3가 대로변 건물중의 1층과 2층 109평 감정 15억8천 회사서욱.병원.의원 가능 가격은 협의의 바람

●금남로 침입교집 대로변 땅 247평 중심 상업지역. 영업할 필 공시지가 13억 투자까지 총출 18억

●충장로 5가 수곡면 대지27 공시지가1억9천2백 매도 1억8천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324 감정15억4천 임대면적은 전세5천만원 월60만원 대출5억5천 매도5억3천

●유촌동 땅 1632평 창고 350평 공시지가 14억2천 매도21억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372 공시지가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화순 이양면 소재지 국도접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정적합 대출5천5백 공시지기에 매도7700만원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5천

●동구 수곡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원룸.다기주거적합 공시지가 6억30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광산구 주유소 5470 대출7억 8천8백3천

●대인동 계림사 장영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금남로4가 대지9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대인동 버스도착당 대지63㎡ 공시지기에 매도 1억3400

■매도·교환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중음 1억7500

●남평을 교원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과공장 1억9천

●사할부지. 북구 덕의동 광우동 부근 1840평 4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